

美, 애플 ‘中 메모리’ 제동… 삼성·SK, 반사익·리스크 교차

美 의회 中 메모리 사용 제한 요구
CXMT의 애플 공급망 진입 제동

삼성·SK 기존 납품 물량 방어 기대
수급난 속 가격 협상력 유지 가능

갈등 격화 땀 현지 공장 운영 부담
中 시장 판매 불확실성 확대 우려

미국 의회가 애플을 비롯한 자국 기업의 중국산 메모리 사용 제한을 요구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의 애플 공급망 진입이 무산될 경우 국내 메모리 업체가 기존 고객사 물량과 협상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미중 반도체 갈등이 심화될 경우 중국 사업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질 수 있어 일방적인 수혜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21일 업계와 외신에 따르면 존 물레나르 미국 하원 중국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조지 화이트사이드 의원은 최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의 CXMT D램과 양쯔메모리테크놀



사진은 미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애플 매장.

/뉴시스

로지(YMTC) 낸드플래시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원들은 중국산 메모리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미국의 국가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CXMT를 미 상무부의 엔터티리스트에 추가하고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요구는 아직 의회 차원의 의견으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아니다.

이번 움직임은 애플이 중국 판매용 일부 제품에 CXMT D램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나왔다. 애플은 최근 CXMT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시험

중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신규 공급사 편입을 위한 사전 검증 단계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미국이 중국산 메모리 사용 제한에 나설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애플에 공급 물량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애플이 CXMT를 신규 공급사로 확

보하지 못하면 기존 거래처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중심의 조달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메모리 공급 여력이 빠듯한 상황에서 기존 공급사의 협상력이 일정 부분 유지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이를 국내 업체의 수혜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CXMT는 중국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며 모바일 D램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미국의 규제로 글로벌 고객사 확보가 지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국내 업체의 경쟁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요 생산기지이자 판매 시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미국의 대중 규제가 확대되면 중국 내 공장 운영과 첨단 장비 반입, 현지 고객사 확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국산 메모리 채택을 늘릴 경우 현지 시장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향후 미국 정부가 CXMT를 엔터티리스트에 포함할지, 중국산 메모리 사용 제한을 어느 수준까지 확대할지가 국내 메모리 업체에 미칠 영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가 미국 기업에 국한될지, 동맹국을 포함한 글로벌 공급망 차원으로 이어질지가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CXMT의 애플 공급망 진입이 제한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기존 고객사와의 거래를 유지하는 데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도 함께 커질 수 있어 국내 업체에 미칠 영향을 단순히 수혜 여부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metro

예·적금 넘어 투자로 자산형성 청년형 ISA 내년 상반기 출격

연소득 7500만원 이하 청년 가입
납입한도·비과세 혜택 대폭 확대
미래적금 중복 불가 소득별 선택

청년 세대의 재테크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예·적금 수익률이 물가상승률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면서 저축만으로는 목돈 마련이 어려워졌고, 인구구조 변화와 연금제도의 개편으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자산형성의 중요성이 커져서다. 정부도 청년의 중·장기 재테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출시하는 등 정책 지원에 나섰다.

◆ 내년 상반기 청년형 ISA 출시

21일 정부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출시한다. 청년형 ISA는 국내 증시·펀드 등 투자상품을 활용한 청년 세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다.

청년형 ISA는 연 75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고 만 19~34세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기존 ISA 통장과 비교해 납입 한도가 높고, 납입액에 따른 비과세 혜택도 크다. 또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확대했다. 청년형 ISA는 기존 ISA 통장과 중복 가입이 가능하지만, 기존 ISA 통장에서는 허용됐던 해외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매수는 불가능하다.

정부가 청년형 ISA를 출시하는 것은 예·적금 만으로는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워진 만큼, 중·장기 투자를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따르면 지난 6월 한 달간 국내 17개 소매은행이 취급한 1년물 예금 금리 평균은 3.04%에 불과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추산하는 2026년 물가상승률인 2.8%와 유사한 수준이다.

◆ 최적의 상품 선택해야

청년형 ISA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상품인 만큼 청년미래적금과의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단, 기존 ISA 통장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연금저축과의 중복 가입은 가능한 만큼 자신의 금융 성향을 고려해 최적의 조합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청년미래적금의 우대형 가입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우선시하는 게 좋다. 우대형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을 36개월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최대 455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청년형 ISA의 만기 시 수익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로 예정된 4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소득이 연 6000만~7500만원 구간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형 ISA를 우선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년미래적금은 연 소득 7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납입금에 비례한 정부기여금을 제공한다. 정부 기여금을 제외한 기대 수익률은 연 5~6% 금리의 적금과 비슷한 수준으로, 최대 납입 시에도 실질 이자액은 약 100만원에 그친다.

청년미래적금의 일반형 가입 대상이라면 여유 자금 규모와 투자 적극성을 고려해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반형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을 36개월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 약 34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청년형 ISA의 만기 시 세제 혜택보다는 작은 금액이지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또한 기존 ISA 통장이 3년간 최대 200만원의 수익금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투자액이 많지 않다면 청년미래적금을 우선시하는 게 좋다.

/안승진 기자 asj1231@



metro

KB금융그룹

국민의당

금융파트너

세상을 바꾸는 금융

일상이 잠시 멈춰도
KB손해보험과 다시 출발

속상한 일이 생겨도 이상한 일이 생겨도
일상은, 멈춰선 안되죠

당신에게 그 어떤 일이 생겨도
일상의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KB손해보험이 곁에서 힘이 되겠습니다

[일상을 지키는 힘 | KB손해보험]

KB손해보험